'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노동권보장·사회공공성강화·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교육지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www.nodong.org | ☎02-2670-9120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제는 파면과 처벌이다

-내란 동조 · 극우 세력'남김없이'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 투쟁 시작하자! -

드디어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었다. 불법 계엄, 내란 우두머리가 된 지 46일 만이다. 그 시간 동안 노동자와 시민들은 '광장에서 만난 동지'이자, '함께 투쟁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반면 헌정 질서를 교란한 윤석열과 극우세력들의 비이성적, 반헌법적 행태는 도를 넘어 법원 폭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윤석열 구속은 사회 대개혁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평등·평화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12월 3일 내란의 밤을 거치며 분명히 달라진 두 가지

·대통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윤석열에 대한 법적, 정치적 규정은 분명해졌다. 극우 유튜버 신봉자, 총과 도끼를 써서라도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자, 언제든 전쟁을 획책할 수 있는 자, 급기야 광기의 극우집단을 부추겨 사법기관 폭동까지 야기한 자. 이렇듯 윤석열의 법치 교란·추태가 계속되면서 '내란 우두머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광장에서 동지가 된 우리' 노동자-응원봉 시민들, 투쟁 공동체로 거듭나.

계엄군의 국회 봉쇄를 막아낸 힘도, 요새화된 한남동 관저를 뚫어낸 힘도, 노동자·시민이 함께 투쟁한 광장의 힘이었다.

▲대한민국 76년간 총 17회의 계엄 중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최초의 계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불응하다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
노동자와 시민들은 전례 없는 쟁취의 기록,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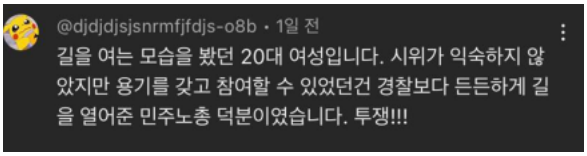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위험천만 계엄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철저히 준비된 계엄이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침 유도 ▲북파 공작원을 활용한 국내 테러 조작 ▲NLL 포격으로 북의 포격 유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북 도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 22대 총선 결과 부정 ▲국회 해산 시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체포, 구금 지시 ▲정당 활동 금지와 사실상의 노조 활동 금지 ▲언론 통제와 북풍 조작까지, 현재 밝혀지고 공표된 것들만 보더라도 윤석열의 '전쟁 획책, 파쇼 독재' 시도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윤석열의 계엄은 오랜 시간 은밀하게 준비되었다. 다만 윤석열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맨 몸을 던질 수 있는 노동자·시민의 존재, 광장 투쟁의 위력이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민주노총, 계엄선포 후 즉각 총파업 지침 내려

민주노총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즉시 국회 집결 지침을 내리고 국회 앞 시민들의 투쟁에 함께 했다. 현장에 모인 민주노총 중집들은 긴급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단호한 투쟁 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돌입 ▲내란 공범 국민의힘 규탄 투쟁 ▲국민의힘 의원 문자 항의 행동 ▲시민 촛불 매일 결합 등 쉼 없는 투쟁을 이어갔다. 또한 민주노총을 포함한 1700여 개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만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광장의 투쟁을 넓혀 나갔다.

계엄 직후 국회 탄핵 첫 표결이 진행되던 12월 7일 토요일. 물밀듯 모여드는 100만 시민의 집회 참여를 안전하게 보장하려면 무엇보다 공간 확보가 절실했다.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의 힘'으로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길을 확보했다. 이날부터 '길을 여는 민주노총'이라는 애칭이 생겼고 전례 없던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12월 12일,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한 윤석열 담화를 본 민주노총은 경로를 바꿔 한남동 관저로 진격했다. 민주노총은 관저 진격 투쟁을 성사시키며 윤석열 체포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렇듯 정세의 고비마다 선도적으로 투쟁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전투력 있게 투쟁하는 노동자 대오! 시대의 고비마다 투쟁으로 돌파해 온 민주노총의 역사가 민주주의 광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어렵고 힘들 때 경찰 말고 민주노총 부르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의미로 "민주노총 부른다고 했다"가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응원봉 시민들과 민주노총은 동지가 되었습니다." 한남동 대첩

-'임을 위한 행진곡'과 '다시 만난 세계' 함께 부르는 광장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 작전 5시간 만에 실패.

민주노총은 긴급 투쟁으로 한남동 관저 앞 농성 투쟁을 결의했다.
온라인에서는 "민주노총이 나를 불렀다"가 또 다른 밈이 되어 응원봉 시민들이 관저 앞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노동자의 삶과 투쟁에 집중했고,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다시 돌아보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자 동지로 거듭났다.

민주노총과 응원봉 시민들의 연대는 탄핵의 광장을 넘어 노동자 투쟁 현장으로, 장애인 투쟁 현장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한 연대로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과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는 광장이 비로소 펼쳐졌다.

"우리의 3박 4일은 위대했습니다.
눈보라도 비바람도 우리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투쟁을 외치고, 노동자와 기성세대들은 '다시 만난 세계'에 함께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지가 되었고 깨지지 않는 연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
"연대는, 투쟁은, 누가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 이 광장에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불씨입니다"
(응원봉 시민발언 中)

☑"2024년 퇴진 광장을 열자" 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민주노총의 역할 "퇴진 광장을 열자!"
민주노총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에 제기하고 총궐기, 국민투표, 거리를 여는 수요 행진, 집행부 전국 현장 순회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호소해 왔다.
▲9월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총궐기 ▲11월 20일 2차 총궐기 ▲12월 7일 3차 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12월 3일 비상계엄 정국을 맞게 되었다.

·현장과 일터의 투쟁이 민주노총의 힘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징계와 수사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합원들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했고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찬반 투표 시 윤퇴진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면서 계엄 직후 99개 지회 13만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파업, 울산 프랜트노조의 윤퇴진 정치총파업이 있었다.
▲일터의 실천으로 서비스연맹 마트 노동자의 근무복 퇴진 버튼 착용, 배달플랫폼노조의 오토바이 배달통 퇴진 스티커 부착 ▲광장과 일터의 연결로서 민주연합노조 '어묵 포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난방 버스 운영, 라이더유니온 '민주주의 배달', 학비 노동자 '탄핵 어묵', 택배노동자들의 '국민 광고판' 등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도 큰 빛을 발했다.

☑조합원들이 광장의 주역으로!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흔들림없이 전진하자!

"노동권과 시민권은 함께 성장할 것이며 광장의 민주주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광장을 통해 노동조합을 배웠습니다. 이제 2030 청년은 노동조합이 정말 하고 싶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지금의 광장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공고한 연대를 다짐하는 장이자 직접 민주주의를 학습하

는 학교이다. 노동자,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빛의 항쟁. 실로 혁명적 국면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윤석열을 내리는 데서 끝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 때까지 광장정치는 끝나지 않아야 한다. 더 강하고 더 넓게 지속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우리 노동자들의 일상은 계엄이었다. 민주노총이 앞장에서 회복시키고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은 분명하다.

모든 노동자와 함께 정권교체를 넘어 다른 세상을 만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의료·돌봄·교육·교통·주거·에너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이것이 200만 민주노총 시대가 만들어 낼 세상이다.

가장 소중한 빛으로 항쟁의 광장을 만든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더욱 광활한 광장을 만들어 사회 대개혁 투쟁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지침

☑ 2월 조합원 행동의 날 지침

전국 동시다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행진 2월 15일(토) 주말촛불

민주노총 온라인 교육시스템

디지털 교육ON

홈페이지 http://edu.kctu.org
문 의 edu.kctu@gmail.com
전 화 02-2670-9120